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 Allen Spine Hospital 연수 후기

서울의대 본과 4 학년
백 종 혁

I. 해외의학연구를 위해 서울에서 뉴욕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UPenn 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 입학한 저에게 미국은 성숙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준 반가운 alma mater 의 나라였습니다. 서울의대를 다니는 중에도 미국을 방문해서 학부 때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제가 다니던 Perelman School of Medicine 소속 연구실에도 찾아가서 함께 일하던 연구팀원들과 회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친근하고 언제든지 접근가능한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생각에 4 학년 해외의학연구를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의학연구를 준비하며 실상을 알게되니 미국의 벽은 높으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척추의 질환과 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제 1 저자로 관련 분야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력을 쌓았습니다. 본과 4 학년 학생으로서는 훌륭한 이력서를 채웠다고 안도하고 있던 저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도전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유럽과 함께 세계 의료를 이끌어가는 두 축 중 하나인 미국의 정형외과에서 clinical elective 를 하고 싶어 지원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대할

기회가 주어지는 clinical elective 는 물론이고 observership 조차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학교를 찾는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돌아오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HSS) 와 UPenn 을 비롯해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등 대학들에 정형외과 실습에 외국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답변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정형외과를 비롯한 surgery 계열의 인기가 매우 높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있었지만,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 싶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CUMC)에 계신 김용정 선생님께 연락이 닿았던 것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서울의대 선배이면서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학계에서도 높은 입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김용정 선생님께 외국인 학생으로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선뜻 CUMC 정형외과로 받아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것을 포기해야할 지를 고민해야했던 찰나에 주어진 기회였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뉴욕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II. 미국 병원에서 체감한 한국과의 다른 면

CUMC 의 병원인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과 Allen Hospital 에서 4 주 간 실습하며 가장 와닿았던 점은 모든 의료가 정말로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Allen

hospital 로 출근한 첫날은 외래에서 참관하기로 하였는데, 외래 시작 전에 그날 예약된 환자 리스트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일 외래 환자 수가 스무 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척추 외래를 참관할 때는 오전에만 70 명에 육박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온종일 앉아서 스무 명도 되지 않는 환자를 보면 남는 시간엔 대체 뭘 할까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외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는 시간과 접근법이 한 환자당 3 분을 넘기지 않았던 한국의 외래 시간과는 적잖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 스스로 충분히 본인이 불편한 부분을 의사에게 설명하면 의사는 철저한 신체검진과 검사 결과를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물었으며, 의사는 환자의 모든 질문이 충분히 설명될 때까지 차분히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진료실 밖에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설명과 함께 처방전을 들이밀며 환자를 내몰아야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움과 부러움이 양존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를 따지기는 쉽게 답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의사들도 이를 장려하는 환자 중심 의료는 미국에서 더 잘 정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체감한 한국과의 차이점은 외래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장에서도 있었습니다. Instrumented fixation 을 예로 들자면, 한국에서 제가 보았던 일반적인 수술 절차는 치프 레지던트나 펠로우가 스킨을 열고 수술 부위를 노출해서 준비를 해두면

어텐딩 교수님이 들어와서 메인 수술을 하고 나가시고 다시 치프 레지던트나 펠로우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수술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갖는 교수님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담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llen hospital 의 수술장에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술은 전적으로 교수님 한 분과 레지던트 한 분이 시행하였고, 모든 스텝을 교수님과 레지던트가 반반씩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은 레지던트 역시 수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의 핵심 파트에 레지던트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 레지던트는 수련을 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환자를 두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레지던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나, 교수의 철저한 감독 하에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단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Allen hospital 에서는 10시간짜리 척추 교정 수술을 하는동안 교수님과 레지던트가 마주 서서 한 쪽을 교수님이 수술하고 반대쪽을 같은 방법으로 레지던트가 하는 방식으로 레지던트를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수련을 받은 레지던트와 4년 동안 수술을 직접 하지 못하고 전문의가 된 레지던트는 실력만으로도 출발선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입하여 레지던트 수련이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III. 미국 내에도 좋은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다

미국에서 scientific evidence 와 research data 를 토대로 한

practice 가 이뤄지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미국의 의료는 마냥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Spinal deformity 에서는 instrumented fixation 을 시행할 때 레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는 외부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점차 악화되는 통증과 kyphosis 로 Allen hospital 을 찾아왔는데, 환자가 악화일로에 빠지게 된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첫 수술에서 instrumented fixation 의 레벨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상 상태의 척추의 kyphosis 와 lordosis 로 맞추기 위해 각도를 만드는 데만 신경 쓴 나머지, deformity 수술의 대원칙을 간과한 탓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기술로도 instrumentation 을 한 마지막 레벨의 척추 주변으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걸리는 junctional problem 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junctional problem 에 대한 숙고가 부족했던 탓에 해당 환자는 deformity 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재수술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에 대해 교수님과 토의하면서 미국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미국 의료의 밝은 면만을 볼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IV. 미국 연수 후 남은 것들

미국에서 4 주 간의 실습을 통해 얻은 것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재미 서울의대 동창회와의 인연과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국 내 정형외과 실습을 가능하게 해주신 김용정 선생님은 물론이고, 장학금을 통해 미국으로 연수를 도와주신 그린프로젝트 장학회, 미국에서 만나뵙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재미 서울의대 동창회 선배님들 그리고 성공적인 4 주 연수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연수 가기 전의 본과 4 학년 학생보다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더 발전할 기회를 얻게된 만큼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 베풀고,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